

山海經에 나타난 神의 性格

徐 敬 浩*

一. 緒 言

山海經에 실려 있는 神話¹⁾는 매우 多樣한 面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 두마디, 或은 한편의 論文으로서 그 全體的 性格을 集約해 내기는 不足하다. 그것은 山海經이 한 時期에, 한 作者에 依해서 一貫的인 概念下에 쓰여진 것이 아님으로 해서 생긴 現象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山海經에 記錄된 바는 각각 獨立的인 事項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 記錄에는 部分的으로 記錄形態의 統一性은 있으나,²⁾ 各 事項의 認識에 關한 統一的인 概念은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山海經의 資料를 中國神話의 研究에서 活用할 때에는 이러한 點을 基本的으로 前提한 後에야 可能할 것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이 問題를 說明하기 爲해 蓐收의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山海經에서 나타나는 蓐收의 記錄은 2가지이다.³⁾ 한편 이 蓐收는 國語·晉語에서도 出現하고 있다.⁴⁾ 비록 蓐收라는 同名의 神이 3가지 記

* 全北大學校 專任講師(中文學)

- 1) 여기에서 神話라는 말은 一般的인 意味로 쓰인 것이다. 실제로 山海經의 어느 部分이 神話에 속하는지에 關해서는 確實히 規明된 바 없으며, 大部分의 學者들은 막연히 神話라는 用語를 使用하여 왔다. 筆者로서도 이 問題를 아직 克服못하였으므로 당분간 이와 같은 막연한 態度를 取하기로 한다.
- 2) 部分的인 記錄形態의 統一性이란 곧 五藏山經, 海內外經, 大荒經 등에서 유지되고 있는 記錄의 形式을 말한다. 拙稿(1979) pp. 151~153 參照.
- 3) 資料表 10, 31 參照.
- 4) 國語·晉語「虢公夢在廟, 有神人面, 白毛虎爪, 執鉞, 立於西阿。公懼而走, 神曰, 無走。帝命曰, 使晉襲于爾門。公拜稽首, 覺。召太史躡占之, 對曰, 如君之言, 則蓐收也, 天之刑神也, 天事官成。…」

錄에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들 記錄을 자세히 檢討해 보면 各各의 記錄에서 蓐收가 가지고 있는 性格은 모두 다른 것이다. 우선 山海經에서의 2가지 記錄에서 나타난 蓐收가 같은 性格을 가진 것이 아니고, 國語에 나타난 蓐收에 대한 認識은 山海經에서 나타난 것과는 더욱 다른 것이다.

見解에 따라서는 이 3가지의 記錄이 모두 蓐收라는 存在의 性格을 部分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主張도 있을 수 있다.⁵⁾ 그러나 이 3가지의 記錄이 나타난 山海經의 西次三經, 海外西經, 그리고 國語는 각각 成書의 時代와 背景이 다르고 따라서 거기에 실려있는 內容의 來源이 一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主張은 수증하기에 곤란한 點이 있다. 筆者의 拙見으로는 蓐收라는 名稱은 古代神話에 있어서 널리 流布되었을지라도 이 3가지 記錄에서 指稱하는 蓐收는 同一한 存在가 아니라 서로 다른 來源을 가진 存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적어도 이 3가지의 記錄은 蓐收라는 存在에 대한 서로 다른 認識의 결과이지, 결코 상호연관되는 同一한 認識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蓐收到 關한 3가지의 記錄은 別個의 資料로 取扱되어야 하며, 이러한 點이 山海經의 資料를 取扱할 때에 반드시 留意해야 할 問題라 본다.

本考에서는 이러한 資料上의 問題를 前提로 하여 山海經에 나타난 神이라는 存在의 性格을 規明해 보고자 한다. 神이라는 名稱을 가진 存在는 古代 中國의 典籍에 散見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名稱의 神이지만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性格은 一定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의 統一的인 神의 地位를 賦與할 수 있는지 조차도 아직은 檢討해 보아야 할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山海經의 神만을 다른 資料와 關係없이 다루어서 그 性格을 規明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여기에 앞서 말한 資料의 問題를 前提로 해야만 하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本考에서 神의 性格을 規明해 보려는 가장 주된 理由는 神의 存在가 神話를 構成하는 가장 基本的인 要素라는 假定에 根據한 것이다. 이러

한 假定을 證明하기 爲해서는 神의 어떤 性質로 말미암아 그들이 神話의 要素가 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때 神話의 要素가 되는 神의 性格은 一定한 共通點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山海經을 비롯한 古代 中國의 典籍에서 散見되는 神들은 既存의 神이며, 그들이 神話의 要素이든 아니든간에 神이라는 名稱과 存在는 이미 決定지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山海經에 나타난 神의 性格을 規明함에 있어서는 우선 이 既存의 神이 어떠한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分類가 可能하며, 그들의 一般性, 特殊性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規明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本考에서 試圖하려는 바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作業이후에야 어떤 性格으로 因해 神이 神話의 要素가 되는가 或은 어떤 性格으로 因해 某神은 그 名稱에도 不拘하고 神話의 要素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등의 問題를 檢討할 餘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爲해 筆者는 우선 山海經에 나타난 神이라는 存在에 關한 記錄을 모두 뽑아서, 한편으로는 거듭되는 引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爲해서, 引用資料表를 만들어서 本文의 끝에 配列하였다.

論述의 順序는 우선 山海經의 神이 지니는 一般的인 意味를 檢討하고 다음에는 神과 人間과의 關係, 神의 獸性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命題는 神이 지닌 性格을 살펴보는 方法으로 設定된 것이다. 다음에는 神의 性格을 存在와 職能으로 區分하고 이에 따르는 問題點과, 이러한 區分에서 나타난 神의 性格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一般的으로 山海經의 神話的 資料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本考에서 檢討되는 內容만을 指稱하는 것은 아니다. 本考에서 檢討할 神에 關한 記錄 이외에도 山海經에는 神話資料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記錄이 多數 보인다. 그러나 이들 記錄에 나타나는 人物들은 神과는 그 性質上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으로 해서 별도로 檢討하기로 하고 本

5) 袁珂, pp. 75~77 參照.

考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二. 神集團의 意味

1. 神의 集團性과 個別性

우선 本考에서 檢討의 對象이 되는 神이라는 名稱이 가지는 意味에 關해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이미 言及된 바 있거니와 山海經에는 상당수의 神으로 呼稱되는 存在들이 나타나 있고, 資料表에서 볼 수 있듯 神의 大部分은 自身들의 獨特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記錄의 形式을 보면 五藏山經에서는 「神某」라는 形式으로 그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大部分이고, 海內外經과 大荒經에서는 「有神, …其名曰某」의 形式으로 되어 있다.⁶⁾

그러면 神이라는 同一한 名稱이 주어진 存在가 多數 記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것은 곧 神이 하나의 集團으로 認識되었음을 意味한다고 보겠다. 그리고 神이 하나의 集團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集團의 構成員에게 神이라는 名稱이 共通的으로 주어 졌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特殊性을 共有하는 것으로 認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特殊性은 곧 神이 가지고 있는 性格이며, 이것으로 因해서 神은, 個別的으로든 集團적으로든, 神以外의 存在들, 例컨대 動·植物·人間等과 區別되어 認識되었다고 보겠다.

한편 각각의 神이 그 自身の 獨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事實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神들이 構成하는 集團內에서 神들이 相互區別되어 認識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集團內의 神들이 모두 同一한 存在가 아니라, 神들이 外部的으로 나타내는 共通的인 特殊性 下에서, 神은 그 集團內에서 서로 區別되어질 수 있는

6) 이것은 가장 一般的인 形式을 말한 것이다. 實際로는 이러한 敘述方式에 例外가 많으며, 特히 大荒經에서는 記錄의 形式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

自身の 特殊性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各各의 神은 兩面性을 띤 存在로 認識되었다고 볼 수 있다. 神을 다른 存在들과 區別되는 하나의 集團으로 파악할 때는 그들은, 그들이 共有하는 集團的인 特殊性으로 一般化되어진 存在들이지만, 集團內에서는 각각의 特殊性을 지닌 個別的 存在로 認識된 것이다. 集團으로서의 神은 一般的인 特殊性으로 因해 파악된 存在이므로 그들에 대한 概念은 추상적이고 象徵的이라고 본다. 反面 個別的 存在로서의 神은 神들 相互間에 있어서도 서로 特殊한 個別性을 지닌 보다 實在的이며 具體的인 存在로 파악되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認識이 神話的 構造를 形成해 나가는 段階라고 推測해 볼 수 있다. 卽 集團的 存在로서의 神은 하나의 概念이 形成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곧 神話의 外部輪廓이 形成됨을 뜻하는 것이다. 個別的 存在로서의 神이 設定되었다는 것은 그 概念의 內容이 具體的으로 表現되어 이미 形成된 輪廓內의 細部的 狀況이 構築됨을 意味한다. 그리고 神話的 構造는 이러한 두가지의 段階를 거쳐서 비로소 짜여지게 되는 것이다.

2. 集團性과 個別神의 問題

지금까지 敘述한 것은 山海經에 나오는 神의 存在를 一般化시켜 세워본 假說이다. 이제 이러한 假說下에서 資料를 보다 세밀히 檢討해 보기로 한다.

神의 個別性이란 한 神이 가지는 特殊性을 말하는 것이며, 神의 認識은 궁극적으로는 個別神의 存在를 認識하는 것이다. 實際로 山海經에 나타난 神을 조사하면 大部分이 個別的인 存在로 記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例外가 있으니, 그 중에는 同一한 個別的 特殊性을 갖춘 集團的인 神이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引用資料 11, 14, 15, 20, 23, 24, 37을 보면 「百神」, 「多怪神」, 「恒出

神人」, 「多神輝」, 「神人二八」, 「神十人」 등의 表現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表現에서 나타난 것은 이 神들이 集團으로 記述되어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類의 神을 集團神이라 부르기로 하고⁷⁾ 이에 對比되는 個別的 存在로서의 神을 個別神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集團神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百神」과 「恒出神人」이란 表現에서 나타난 神에 대한 認識은 막연하고 一般的인 것이다. 이것은 결국 神 以外の 集團과 區別되는 意味로서의 神이라는 意味에 不遇한 것이며, 따라서 앞서 말한 神에 대한 概念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어떤 特殊性을 前提로 한 個別的 存在로 認識된 神은 아니다.

둘째, 이에 비해 「怪神」, 「神輝」, 「神人二八」, 「神十人」 등의 表現을 보면, 이 神들이 集團으로 記錄되었다는 點에서는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서와 다른 것은 이 集團神은 集團의 個別性を 지니고 있다는 點이다. 좀 더 具體적으로 說明하면, 「神輝」, 「怪神」은 外部的으로 자신들의 集團을 나타내는 獨特한 形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形狀은 곧 그 集團에 個別性を 賦與하는 特殊性이라고 할 수 있다. 또 「神人二八」과 「神十人」 등의 表現에서는 多數가 한 名稱으로 묶여서 그 性質을 共有하는 集團神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四種의 集團神은 그 集團의 特殊性으로 因해 個別性を 賦與받은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個別的 集團神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個別的 集團神에서 特히 注目해야 할 事項은 이 神들이 集團의 特殊性으로 나타난 데 反해 各各의 神이 지니는 特殊性은 無視되고 있다는 點이다. 다시 말해서 이 神들은 그 集團에 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特殊性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神들의 個別性은 存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에 個別的 集團神은 集團으로서만 그 生命을 維持하는 것이며, 그 構成員인 神이 個別的으로 獨立될 때에는

7) 이 集團神을 비롯하여 앞으로 本考에서 使用될 모든 用語는 全部 筆者가 직접 만들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意味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神話研究에 있어서 個別神들이 가장 基本的인 單位要素라고 假定할 때 이 個別的 集團神은 個別神과 같은 單位로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한 개의 集團을 이루고 있다 해도 이 個別的 集團神이 表出하는 性格이 個別神의 性格에 비해 더 크게 복잡하거나 重要性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個別的 集團神이란 한 集團의 神이 個別神과 같은 類型的 性格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山海經에 나타난 神들은 이러한 集團神과 각각 個別的 特殊性을 지니는 個別神으로 分類될 수 있다. 個別神이 지니는 特殊性은 여러가지 形態로 記述되고 있는데, 이름, 形狀, 活動, 職能, 象徵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西次三經에는 한가지 例外的인 「天神」이라는 存在가 나타나고 있다.⁸⁾ 이 「天神」이 例外的이라는 것은 우선 다른 神들과 달리 「天神」이라는 名稱을 가지고 있고, 또 「天神」이 自身の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點에 根據한 것이다.

이 「天神」의 出現은 극히 偶發的인 것일 수도 있다. 資料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神」에 關한 記錄의 形式은 五藏山經 內的 다른 神에 關한 記錄에서 나타난 形式과 큰 차이가 없다. 또 그 名稱의 「天」이란 概念도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다. 「神·陸吾」, 「長乘」, 「西王母」, 「泰逢」 등의 記錄⁹⁾을 보면 그들이 天과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보아 神은 一般的으로 天과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天神」이라는 名稱이 어떤 特別한 意味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天神」이 自身の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記錄의 時代에 이미 그 이름이 消滅되었거나, 애초에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可能性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8) 資料表 2 參照.

9) 資料表 3, 4, 5, 13 參照.

그러나 이러한 偶發的인 可能性에 期待하기보다는 어떤 假定下에 確實히 推理를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天神」이 出現한 部分은 西次三經으로 이 西次三經이 屬해 있는 五藏山經은 山海經의 여러 部分들 중에서 가장 記錄의 形態가 完整되어 있다. 그리고 五藏山經에 나오는 個別神은, 「天神」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자신들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天神」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원래 이름이 없기 때문이며, 결코 本來에 있던 이름이 消滅된 結果가 아니라고 假定해 볼 수 있다.

「天神」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곧 그가 個別神으로서 갖추어야 할 個別的 特殊性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理解되기 쉬우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天神」의 記錄을 보면 그의 個別的 特殊性은 分明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前論한 個別的 集團神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個別的 集團神의 경우, 그 集團의 特性만이 나타나 있을 뿐 各神의 이름은 일체 나와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天神」은 個別的 集團神과 비슷한 存在로 推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天」神은 集團은 아님이 分明하다. 다만 神의 個別性에 대한 認識의 程度가 個別的 集團神과 비슷한 水準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古代人이 神의 個別性에 대한 認識에 程度의 差異가 있었음을 推測해 볼 수 있다. 가장 基本的인 認識은 前述한 바와 같이 神의 集團이 存在한다는 概念의 認識이었을 것이며, 이 概念은 점차 具體化되어 個別神을 設定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具體化의 過程에서 大部分의 神들에게는 名稱을 비롯한 個別的 特殊性이 分明히 賦與된 反面, 一部 少數의 神에게는 完全한 特殊性이 賦與되지를 못해서 그들이 中間的인 立場에 남게 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集團的 個別神과 「天神」은 바로 이러한 部類의 神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個別的 特殊性은 完全히 具體化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神의 世界에 대한 認識도 完全히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假定이 成立될 수 있다면, 우리는 山海經에 이와 같은 認識이 나타난 點에 根據하여 神의 概念이 完全히 統一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山海經의 모든 神들이 神話內에서 同一한 役割을 담당할 수 있는 神은 아닐 것이며, 이러한 理由에서 山海經의 神話的 資料는 세밀히 檢討된 後 選別的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三. 神과 人間과의 關係

1. 神과 人間의 接觸

山海經의 神이 지닌 性格을 檢討하는 方法의 하나로 神이 人間과 어떤 關係에 있는지를 檢討해 보려 한다. 이러한 檢討는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必要한 것이다. 卽 神은 그들이 지닌 特殊性으로 餘他の 存在와 區別되는 存在임은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이 餘他の 存在들 중에서 가장 中心的인 存在는 人間이다. 또 神은 人間에 依해 設定된 것이며, 神의 認識에는 人間에 대한 意識이 다분히 섞여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神과 人間의 關係는, 直接的으로는 人間에 對한 神의 役割을 나타내지만, 內面的으로는 人間이 認識한 神의 性格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

山海經의 記錄에서 神과 人間의 關係를 直接的으로 敍述하는 것은 少數에 不過한데, 이러한 種類의 記錄은 대개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分類될 수 있겠다.

첫째로, 五藏山經內의 每經의 끝부분마다에 記述된 一定한 地域의 神

10) 여기에서 말하는 人間이란 一般的인 意味에서 쓰인 것이며, 超人間的인 能力을 지닌 人間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 대한 祭祠方法에 關한 記錄들이 있는데, 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凡南次三經之首天虞之山以至南禺之山，凡一十四山，六千七百四十里，其神皆龍身而人面，其祠皆一白狗祈，糈用稌。(南山經)

(南次三經의 始作인 天虞之山에서 南禺之山까지는 14개의 山이 있고 그 거리는 6,740里이다. 그 神은 모두 龍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그에게 제사지낼 때에는 한마리의 흰 개로 祈禱를 올리고, 쌀을 祭物로 쓴다.)

凡西次三經之首崇吾之山至于翼望之山，凡二十三山，六千七百四十里，其神狀皆羊身人面，其祠之禮用一吉玉瘞，糈用稷米。(西山經)

(西次三經의 始作인 崇吾之山부터 翼望之山까지는 23개의 山이 있고 그 거리는 6,740里가 된다. 그 神은 모두 羊의 모습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 祭祠의 禮는 한개의 吉한 玉瘞¹¹⁾를 가지고 行하며 祭物로는 稷米를 쓴다.

이 2條의 記錄에서 나타난 神은 一定地域에 崇拜된 神의 集團이다. 이들은 集團的 特殊性을 갖추고 있으나, 앞서 論及한 個別的 集團神과는 차이가 있는 存在들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神들은 人間이 祭祠를 通해 崇拜하는 對象이며, 神과 人間의 接觸은 祭祠를 通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은 具體化되어 있는 神들이 아니고 人間이 막연히 設定한 概念上의 神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種類의 神은 神話上의 神과는 그 意味가 다르며, 論議의 角度도 달라져야 할 것인 바, 本考에서는 더 以上 論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로 들 수 있는 神과 人間의 接觸은 이미 引用한 바 있는 「天神」의 記錄에서 보인 「見則其邑有兵」과 같은 內容에서 表現된 接觸이 되겠다. 이와 비슷한 內容은 中次十一經의 「耕父」, 海內經의 「延維」의 記錄¹²⁾에서도 나타난다. 이 3條의 記錄에 비슷한 性質의 內容이 出現한다는 點에서 볼 때, 이 性質은 곧 「天神」, 「耕父」, 「延維」가 共有하는 神的 特

11) 郭注：「玉瘞，玉加采色者也。」

12) 資料表 21, 41 參照.

殊性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 內容이 지니는 意味는, 神이 人間에 나타남으로써 人間의 生活에 어떤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겠다. 이 경우 記錄의 中心은 人間이며, 人間에게 일어나는 現象이 神에 依해 象徵되는 것이다. 따라서 神은 神의 世界에서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世界에 하나의 象徵으로 出現하는 것이며, 이런 點으로 보아 우리는 神과 人間의 世界가 嚴格히 分界되어 있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神이 人間의 世界에도 나타날 수 있었음을 推測할 수 있다.

이러한 接觸을 통해 認識된 神은 人間에게는 다른 神들보다 더 實在的인 存在였을 것이다. 그러나 神의 世界에서 보면 이들은 덜 神的이며, 神界에서만 存在하고 活動하는 神과 人間의 中間的인 存在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神의 外形의 特殊性

山海經에 나타난 神과 人間의 接觸에 關한 記錄은 豊富하지도 않고, 具體的이지도 못해서 神과 人間의 關係를 規明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神과 人間의 關係는 直接的인 接觸에 關한 記錄보다는 人間에 依해 神이 어떻게 認識되었나 하는 點에서 間接的으로 찾아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認識은 山海經에서는 神의 形狀과 神이 人間을 向해 露出된 特殊性을 통해 觀察될 수 있다고 본다.

資料에서 알 수 있듯이 神들의 記錄에는 그 神의 獨特한 形狀이 言及되어 있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神에게 形狀이 있다는 것은, 神이 自身의 名稱을 가지고 있는 點과 마찬가지로 各神에게 個別性을 賦與하는 要素가 된다.

한편 神의 形狀은 山海經의 神들이 集團的으로 共有하는 特殊性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은 그 形狀의 設定이 어떤 共通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共通點이란 人間이 볼 수 있는 動物體의 各部分을

섞어 놓은 「異類合體」의 構造¹³⁾로 形狀이 設定되어 있는 點이다.

이러한 點을 通해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事項을 推測해 볼 수 있다.

첫째, 神이 分명한 形狀을 가진 存在로 나타난 點으로 보아, 그들은 可視的인 存在로 認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論한 바 있듯, 神이 自身の 名稱을 비롯한 個別的 特殊性으로 因해 實在的인 存在로 認識되는 것과 같은 方法의 推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可視的이라 함은 實在的이라는 말보다 더욱 具體的인 意味를 가진다. 實在的인 存在로서의 神은 그 存在가 믿어졌음을 말하지만, 可視的이라는 말은 더욱 具體的으로 神들이 人間에 의해 직접 목적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목적은 存在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욱 神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둘째, 神의 形狀을 이루는 各 部分이 모두 動物體의 部分으로 짜여져 있다는 點으로 보아서, 神은 活動하는 存在로 認識되었음을 알 수 있다. 神중에 한 곳에 固定되어 있는 植物의 모양과 비슷한 形狀을 가진 神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點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同時에 神의 形狀이 動物體의 形狀에서 비롯되었다는 點에서 볼 때 神은 部分的으로 獸性を 지니고 있는 存在로 認識되었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論하기로 한다.

셋째, 이러한 形狀이 나타난 것은 곧 人間이 神을 자신들과는 다른 特殊한 存在로 認識했다는 點을 보여주고 있다. 神은 人間에 의해 設定된 것이기 때문에 그 形狀도 人間이 想像할 수 있는 範圍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動物體의 組合으로 이루어진 神의 形狀도 人間の 想像力의 범위내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制約된 범위내에서 人間이 一般的으로 대하는 動物과는 다른 特殊한 存在로 認識된 것이 神이고, 그래서 神의 形狀은 一般的이 아닌 「異類合體」의 形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神의 形狀을 特定 動物과 같이 表現했다면, 그 神은 形狀

13) 樂衛軍, pp. 6 參照.

의 一般性으로 因해 아무런 特殊性도 賦與받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神的 特殊性의 認識은 반드시 形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神의 周邊에서 보이는 特殊한 現象의 記述을 通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資料表 16, 17, 18, 22를 보면 「多怪風雨」「出入有光」「必有飄風暴雨」와 같은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이 記述된 것은 그것이 一般性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非一般性은 神의 存在와 連結되어, 神의 特殊性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神의 特殊한 形狀과 神 周邊의 現象은 神이 人間으로부터 區別되는 特殊性을 形成하는 것이며, 이러한 區別에 의해 人間은 神을 神的인 存在로 認識하였으며, 人間이 神을 崇拜하고 畏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特殊性에서 비롯된 結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神人의 問題

그러나 神과 人間の 이러한 區別은, 山海經에 나오는 모든 神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山海經에는 神과 人間の 區別이 모호한 關係를 나타내는 記錄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記錄들 중에서 우선 資料 20, 34, 35에서 보이는 「神人」이라는 名稱에 關해서 檢討해 보기로 한다.

이 「神人」이라는 名稱은 神과 人間の 複合體일 수도 있으나, 그 性質이나 特性에 關해서 山海經에서 具體的으로 說明된 바는 一切 없다. 그 名稱만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人格化한 神이라고 할 수도 있고, 神格化한 人間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 神인이 本來의 神, 人間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說明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 問題의 解決을 爲해 山海經의 資料를 자세히 檢討해 보아야 하겠다.

資料 27과 35에 나와 있는 「天吳」의 記錄을 보면 神과 神人의 關係를 살펴볼 수 있다. 두 記錄에서 나타나는 「天吳」는 資料表 27에서는 神으로, 35에서는 神人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그 內容을 比較해 보면, 첫째

두 記錄의 中心은 「天吳」라는 同一名稱을 가지고 있고, 둘째 그 形狀에 있어서 「八首人面」이란 點은 같고 서로 다른 點은 「八尾」와 「十尾」뿐이다. 셋째, 두 記錄은 海外東經과 大荒東經, 即 같은 方位에 해당되는 篇에 각각 실려 있어 東方과의 關係를 지니고 있다. 이 세가지 事項에 根據해서 우리는 神으로서의 「天吳」와 神人으로서의 「天吳」는 同一한 存在라고 推測할 수 있다. 그렇다면 神과 神人이라는 두 名稱의 意味는 同一한 것이라고 보겠다.

다음에는 資料 5와 48에 나타난 두 種類의 「西王母」의 記錄을 比較해 본다. 먼저 資料 5에 나타난 「西王母」는 神의 存在¹⁴⁾인데 비해 48의 「西王母」는 「人」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앞서 「天吳」의 경우와 같은 理由로 이 두 「西王母」가 同一한 存在라고 보면, 神과 人이란 결국 같은 呼稱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神과 人이란 呼稱이 混用될 수 있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렇게 神과 神人, 神과 人의 混稱이 나오는 것은 곧 神과 人間을 區別하는 認識이 部分的으로 흐트러져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山海經에서 出現하는 神은 多數인 反面, 神人이나 神을 人間으로 記錄한 例는 極少數이므로, 神이 既存概念이라고 보고 神人이나 神을 人이라 記錄한 것은 이에서 나온 變形된 認識이라 假定해 본다. 그렇다면, 神人과 人이란 神이 人格化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온 混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神과 人間의 區分이 모호해지는 現象은 주로 海內外經과 大荒經에서 나타나고 있고, 五藏山經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¹⁵⁾ 또한 이 方面의 學者들은 大部分이 成書時期에 있어 五藏山經이 앞서 있고, 海內外經과 大荒經은 後期에 지어졌으리라는 推測에 同意하고 있다.¹⁶⁾ 이것은 아직 定論이 될 根據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五藏山經과 海內外經, 大荒經의 成書時期가 一致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疑心の 餘地가 없다

14) 拙稿(1980), pp. 147 參照.

15) 五藏山經에서 나타나는 神人の 記錄은 資料表 20뿐이다.

16) 拙稿(1980), pp. 141-2.

고 하겠다.

이 두가지 事項을 連結해서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假說을 만들어 볼 수 있다. 卽 神에 대한 認識은 대개 두가지의 段階가 있다고 보겠으니, 그 첫번째 段階는 神과 人間의 區別이 嚴格한 段階이고, 두번째로는 神과 人間의 區別이 모호하여 神이 部分的으로 人格化되는 段階이다. 이 두가지 段階를 놓고 볼 때 五藏山經은 첫번째 段階에 해당되는 記錄을 保存하고 있고, 海外內經과 大荒經에는 두번째 段階에 해당되는 記錄을 保存하고 있다고 보겠다. 勿論 이 두 段階가 어떤 起點을 境界로 明確히 劃分될 수 있는 性質은 아니다. 또한 이 두가지 現象이 뒤섞이는 部分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假說을 通해 볼 때, 山海經에서 나타난 神과 人間의 關係는 엄격한 神의 認識과 神·人의 區別이 모호한 두가지 段階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神의 獸性

다음에는 神에 對한 認識을 檢討하는 한 方法으로 神이 지닌 獸性을 조사해 보기로 한다. 이미 言及한 바 있듯, 神의 形狀은 大部分의 경우 動物體의 形狀을 組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神은 畏敬과 崇拜의 對象이면서도 그 存在의 設定에 있어서는 動物體와 同一한 次元으로 認識된 面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形狀의 類似性은 사실 人間이 지닌 상상력의 한계에서 빚어진 結果일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具體적으로 神의 獸性을 살펴보기 爲해서는 資料 2, 21, 41에서 보이는 「見則其國爲敗」와 「人主得而饗食之, 伯天下」라는 內容을 檢討해야 하겠다. 이 內容에 나타난 神의 性質은 그의 出現이 人間世上에 特定의 結果를 招來하는 象徴이며, 이것으로 神이 人間과 直接 接觸하는 것을 意味함은 前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性質은 반드시 神만이 가지는 特性이 아니다. 山海經에 出現하는 鳥獸魚類의 多數가 이와 비슷한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 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東南四百五十里曰長右之山，有獸焉，其狀如禺而四耳，其名長右，其音如吟，見則郡縣大水。(南次二經)

(東南方으로 四百五十里를 가면 長右之山이 있다. 짐승이 있는데, 그 모양은 원숭이 비슷하나 귀가 네개가 있다. 그 이름은 長右라 하며 그 소리는 마치 (중얼중얼) 읊조리는 소리와 같은데, 이 짐승이 나타나면 郡縣에 큰 洪水가 일어난다.)

又西二百二十里曰鳥鼠同穴之山，……渭水出焉而東流注于河，其中多鱖魚，其狀如鱸魚，動則其邑有大兵(西次三經)

(또 西쪽으로 二百二十里를 가면 鳥鼠同穴之山이 있다.……渭水가 이 곳에서 흘러나와 東으로 흘러 河로 들어가는데, 그 물속에는 鱖魚가 많다. 그 모습은 鱸魚와 비슷한데, 이 고기가 움직이면 그 邑에 큰 싸움이 일어난다.)

이 두 記錄에서 보이는 「見則郡縣大水」와 「動則其邑有大兵」은 그 內容의 性質에 있어 「天神」, 「延維」 등의 象徴的인 意味와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神의 이러한 性質은 神만의 것이 아니라 動物類와 共有하는 性質이다. 그런데 山海經을 全體的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性質을 가진 動物類는 무척 많은 데 비해 이러한 性質을 가진 神은 이미 言及한 3條 以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出現에 依한 象徴的인 意味는 神의 屬性이라기보다는 본래 動物類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것이 神의 性質로 나타났을 때에도 神이 獸性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만큼 神에 대한 認識이 動物과 類似할 程度에까지 格下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神에 대한 認識의 한 部分에 不過한 것이지, 어느 時期에 와서는 神이 완전히 動物과 同一視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神이 動物의 位置에까지 格下되었다 해도, 이 動物들이 普通의 日常的인 動物은 아님이 分明하다. 이 動物들도 人間에게는 分明히 特殊한 存在로 認識되었던 것은 分明하다.

어쨌든 人間의 눈으로 보아 神과 動物을 同一하게 認識하는 結果가 생겼다는 것은 곧 神이라는 概念의 限界가 分明하지 않았음을 意味하며, 神은 部分的으로 特殊한 動物과 같은 程度로 認識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四. 神話構造內的 神의 位置

神은 神話에서 어떤 位置에 있으며 어떤 役割을 맡고 있는가 하는 質問은 한 神이 神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決定하는 重要한 要素이다. 이미 言及한 바 있지만, 山海經의 資料에 있어서, 神이 모두 神話內的인 存在는 아닌 것이며, 神이 아니라 해서 모두 神話外的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山海經의 神들이 相互 어떤 關聯을 맺고 있는가? 또 各 神이 가지는 役割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 檢討하기로 하며, 神이 神話內的 存在인지의 與否에 關한 問題는 後日에 다시 論하기로 한다.

우선 大前提로 삼아야 할 것은, 神話의 世界가 하나의 構造를 이루고 있다는 點이다. 勿論 現在 남아있는 資料는 斷片性을 免하지 못하고 있으나, 원래의 神話——이것을 本考에서는 原型神話라 부르기로 한다——는 하나의 構造를 갖춘 것이었으며, 現在의 斷片的인 記錄은 이 原型神話에서 떨어져 나온 部分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神이 神話內的인 存在이기 爲해서는 원래 그가 原型神話에 속해 있어야 한다.

山海經에 나타난 神들이 모두 하나의 原型神話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山海經의 成書背景이나 成書時期의 面에서 볼 때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記錄이 모두 同一한 來源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지금까지 檢討해 온 바에 의하면 神의 性格은 多元的이어서 그것이 同一한 原型神話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筆者는 山海經에서 原型神話を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가지 神話的 小構造를 抽出해 본 바 있다¹⁷⁾.

그러나 山海經의 資料를 研究하기 爲해서는 먼저 그 資料에 속해 있는 各 要素들을 一般化시켜야만 하겠다. 原型神話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山海經의 神들을 斷片的인 存在로 放置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山海經의 神들을 모두 한 平面의 構造로 一般化하여, 이들을 分類하고 檢討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原型神話의 論理와는 일면 어긋나는 點이 있으나, 山海經을 獨立的인 資料로서 다루려는 데에서는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본다.

1. 存在神과 職能神

山海經의 神들을 一般化시켜 생각할 때, 神은 대개 存在神과 職能神이라는 名稱의 두가지로 分類할 수 있겠다. 이 分類는 무엇보다도 現存하는 記錄의 內容에만 根據한 것이다.

存在神이란 山海經의 記錄에 있어서 神 自體의 存在 以外에는 일체 알려진 바가 없는 點에서 붙여본 이름이다. 이 神들의 경우, 神의 이름, 形狀, 그가 居處하는 곳 이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外部的인 存在, 특히 다른 神과의 關係도 일체 나타나 있지 않아 그가 占하는 神話的 構造 內의 位置나 役割도 일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資料의 7, 8, 9, 11, 16, 17, 18, 19, 22, 23, 34, 35, 36, 37, 38, 39, 40 등에 나타난 神들이 바로 存在神에 해당된다.

한편 職能神이란 記錄된 內容이 神의 特殊한 職能을 밝혀주는 데에서 붙인 名稱이다. 이 職能神은 存在神보다 神話的 構造內에서의 位置나 役割이 比較的 分명한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거기에는 程度의 차이가 있다. 이 程度의 差異에 따라서 山海經의 職能神은 다시 構造的 職能神과 斷片的 職能神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構造的 職能神은 神이 職能이 다른 神의 職能과 連關關係를 가짐으로

17) 拙稿(1980) pp. 141-154 參照.

써 神話的 小構造를 形成할 수 있을 때의 職能神을 말하는 것이다. 이 神話的 小構造를 形成하는 例는 拙稿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 중에서 五藏山經에서의 神話的 小構造는 全體的 構造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으나, 거기에 나오는 職能神들을 묶어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構造가 部分的으로 나타난 帝·天·神의 關連性에 根據한 것이었다. 그 構造의 記錄들은 곧 帝·天·神의 關係가 바탕이 되는 더 큰 규모의 原型神話에서 떨어져 나온 部分이라고 본 것이며, 이에 따라 그 小構造의 背景에는 比較的 잘 짜여진 原型神話가 있었을 可能性을 設定할 수 있게 된다는 데에 그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이에 比해 海外經과 大荒經에 나타나 있는 小構造들은 比較的 獨立性을 가지고 있다. 即 海外經에서 나타난 4명의 神이 四方을 各各 맡는다든가, 大荒經에서 나타난 3명의 神이 三方을 各各 맡는 것은, 그것이 비록 原型神話에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도 亦是 하나의 構造를 成立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類의 小構造는 大荒經에서 한가지가 더 發見될 수 있다.¹⁸⁾ 이것은 資料 45, 46, 47에서 나타난 「禺貌」, 「禺京」, 「不廷胡余」, 「弇茲」에 의해 이루어지는 海神의 小構造이다. 이 4명의 神이 지니는 共通點은 이들이 모두 各方位의 渚에 居處하는 點과 各 神이 한 方位씩을 代表하고 있다는 點이다.¹⁹⁾ 한편 「禺貌」와 「禺京」이 渚에 居處하면서도 海神이라고 呼稱된 點으로 미루어서 이 4명의 神이 東西南北의 海神들로 構成된 小構造라고 보는 것이다.

職能이 얼마나 具體的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面에서 본다면 五藏山經의 神들에 關한 記錄이 보다 具體的인 反面 海外經과 大荒經의 記錄은 덜 具體的이다. 五藏山經의 神들이 가지고 있는 職能이란 神話的 構造

18) 여기에 提示하는 小構造는 拙稿(1980)를 作成할 當時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첨가하는 것이다.

19) 이러한 樣式은 이미 海外經과 大荒經에 나와 있으므로 굳이 說明을 붙이지 않는다.

上의 特定部分을 分明히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海外經과 大荒經의 神들은 各各 自身の 方位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들의 職能은 그만큼 象徵的인 것이다. 四方에 흩어져 있는 海神이 具體的으로 어떤 存在인지를 알 수도 없고, 四方神이란 存在도 山海經 以外の 月令과 같은 資料와 比較하지 않는다면 그 意味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斷片的 職能神이란 記錄되어 있는 神의 職能이 上記한 바와 같은 神話的 構造에 포함되지도 않고, 따라서 다른 神과의 連關關係도 나타나 있지 않은 神을 말하는 것이다. 資料 27과 29의 「天吳」와 「雷神」이 이에 해당된다. 「天吳」는 「水伯」이란 말로 그 職能이 表示되어 있고 「雷神」은 名稱 自體가 그 職能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水伯」과 「雷神」은 지금까지 살펴본 어느 小構造에도 편입되기는 어려운 것이며, 그 原型神話조차 추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天吳」의 職能이 確實한 것이었다면 資料 35에서 「水伯」이란 名稱이 빠졌을 것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미 言及한 資料 2, 21, 41의 「天神」, 「耕父」, 「延維」 등도 斷片的 職能으로 볼 수 있다. 即 그들이 象徵하는 바는 곧 그들의 役割이자 職能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職能은 神話的 構造內의 職能이라기보다 神 自身の 存在에 依해 形成된 것이므로 「水伯」과 「雷神」과는 別個의 性質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2. 概念變化의 諸要素

그러면 이러한 存在神, 構造的 職能神, 그리고 斷片的 職能神들이 共存하게 된 背景에는 어떤 要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山海經에 存在神과 職能神이 함께 실려 있다는 것은, 山海經에 記錄된 內容의 背景이 多元的이기 때문임은 前述한 바 있다. 그런데 山海經의 神들을 全體的으로 살펴볼 때 存在神이 職能神에 비해 훨씬 많이 記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存在神의 性質을 가진 神이

그 時期 神에 대한 認識의 重要部分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存在神과 職能神이 함께 記錄되었다는 것은 그 當時 이 두가지의 概念이 共存하는 것을 意味함이 分明하다. 그런데 오늘날 存在神으로 分類된 神들은 現存하는 記錄에 依해 그렇게 分類된 것 뿐이며, 그러한 記錄들의 原型神話에서의 그 神의 記錄과 現存하는 記錄이 一致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存在神으로 불리워지는 神들이 原型神話에서는 職能을 가진 神이었을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原型神話가 完全한 構造를 갖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도리어 原型神話는 斷片的인 要素들의 無分別한 集合體였으며 이것이 점차 體系를 갖춘 神話的 構造로 移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段階는 다음과 같이 類推해 볼 수 있다.

神話의 各 要素는 斷片的인 事項에서 始作되고, 그들 斷片的 要素들이 모여 神話的 構造를 이루었다고 본다면, 神話의 모든 要素가 神話的 構造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 神話的 構造에 포함된 要素들은 그 構造가 必要로 하는 合理的 根據에 依당되는 것만이 選擇되었을 것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斷片的 要素들은 原型神話대로 남거나 점차 消滅되는 段階를 밟게 되었을 것이다. 反面 神話的 構造에 편입된 要素들은 構造가 形成되는 段階에서의 必要에 따라 그 記錄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後期에 이르면 이와는 反對의 現象이 일어날 수 있다. 卽 初期에 形成된 神話的 構造들은 時間의 경과에 따라 다른 構造와 合成하거나, 或은 構造로서의 必要性을 喪失하고 점차 瓦解되는 過程을 밟았을 것이다. 이 瓦解되는 過程에서 既存의 構造에 포함된 神話的 存在들은 모두 分散되어 或은 消滅되거나 本來의 構造에서 逸脫한 斷片的 要素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假說的 論理를 山海經에 적용시켜 보자. 그러던 存在神은 初期에 神話的 構造가 形成되던 단계에서 神話的 構造에 편입되지 못한 要素라고 볼 수가 있다. 構造的 職能神은 바로 이 神話的 構造에 편입되

어진 要素들이라고 보겠으며, 마지막으로 斷片的 職能神은 이 構造들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다시 생겨난 斷片的 存在들이라고 보겠다.²⁰⁾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變化를 招來하는가? 이러한 變化에 介在되어 있는 要素의 變數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楊寬은 이것을 部族間의 투쟁에 따른 神話의 併合, 分離 等으로 說明하였고,²¹⁾ 印順法師은 토템의 異同에 따른 結果였을 可能性을 提起했다.²²⁾

現存하는 山海經의 記錄에서 이러한 問題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한가지 檢討해 볼 만한 것은 神과 特定地域이 가지는 關聯性에 關한 것이다.

山海經의 記錄, 特히 五藏山經의 記錄을 보면 大部分의 記錄은 한 地域에 關한 說明에서부터 始作되며, 神의 記錄도 그가 있는 地域과의 關聯下에 記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五藏山經의 存在神은 特定の 地域에 存在하는 形式으로 記述되어 있고, 職能神도 자신의 地域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海內外經과 大荒經에서는 이러한 特定地域과의 關聯이 덜 具體的이기는 하나, 形態를 바꾸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니, 各 神이 各各의 方位를 맡고 있다는 點이나 四方의 海神이 모두 渚에 居處하는 點, 雷神이 雷澤에 있는 點등이 모두 神과 特定地域과의 關聯性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겠다.

이렇게 神이 特定地域과 關聯되어 있다는 點에서, 우리는 原型神話의 神들은 基本的으로는 地域神의 性質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고 假定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 地域神은 앞서 推論한 바 있는 變化의 過程을 밟았을 것인 바, 대략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세워 볼 수 있다.

山海經의 存在神은 基本的으로는 한 地域의 神으로 存在하였으며, 이 地域을 代表하는 것이 原型神話에 있어서 各 神이 지닌 基本的 要素였

20) 단 天神, 神耕父, 神延維 等の 경우는 이 假說에는 맞지 않는다. 즉 이들은 天吳나 雷神과는 性質을 달리하는 斷片的 職能神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21) 楊寬(1941), pp. 148-154.

22) 印順法師(1973) pp. 21-23.

다고 본다. 그런데 이들 神이 모여 神話的 構造를 形成하게 되면서, 한 神話的 構造가 포용하는 地域이 넓어지게 되자, 이에 포함되는 神의 特定地域과의 關聯性은 점차 희미해지고 마는 반면, 그 神話的 構造에 포함되지 않은 神들은 如前히 한 地域의 神으로 남아 있다가 점차 消滅하는 段階에 이르게 된다. 山海經 以外の 다른 典籍에서 이들 存在神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點이 이러한 假說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構造的 職能神으로 變化한 神들에 있어서도 地域神으로서의 屬性은 部分的으로 남아 있으니, 그들의 職能이란 결국 그들과 關聯되는 地域을 관장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나타나는 神과 地域의 關係는 合理化된 一面을 보여주고 있으며, 「帝之密都」「帝之下都」에서 보듯 神이 관장하는 地域은 特殊한 意味가 있는 것이니, 神과 이 地域들과의 關聯은 構造的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보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假說은 山海經만을 根據로 한 것이기 때문에, 中國神話의 研究에 全般的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未知數이다. 그러나 地域的인 神話의 合成이 中央神話의 出現을 可能하게 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推測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變化에 있어 地域이라는 問題가 變化의 要因이었을 可能性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五. 結 言

本考에서는 山海經에 나타난 神의 性質을 分析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推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結論을 整理해 볼 수 있다.

(1) 山海經의 神은 그들이 共有하는 特殊性으로 因해 다른 存在들로부터 區別되는 集團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 集團內의 各 神은 서로 區別되는 個別的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

(2) 그러나 山海經에는 한가지의 個別的 特殊性을 共有하는 集團神이 出現하고 있다. 따라서 個別的 特殊性을 지닌 神은 個別神과 集團神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

(3) 또한 자신의 이름이 없는 天神이 나타나는 點으로 보아서 古代人들이 가지고 있던 神에 대한 認識은 集團神과 個別神의 分類와 같이 엄격했던 것이 아니라, 그 中間的인 存在가 나타날 可能性도 充分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4) 神과 人間의 接觸은 山海經에서는 두가지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祭禱의 對象인 神은 추상적인 概念으로서의 神인데 比喩象徴으로 認識된 神은 實在的인 存在로 認識된 神으로 보여진다.

(5) 人間이 認識한 神의 形狀과 特殊性을 통해 볼 때 神은 可視的이며 活動的인 存在로 나타나며, 神은 그 特殊性으로 因해 人間으로부터 明確히 區別된다는 點도 함께 나타난다.

(6) 그러나 神人이라는 名稱의 出現을 통해서 본다면 이러한 神과 人間의 區別은 언제나 엄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神이 人格化되었을 可能性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山海經에는 이러한 두가지의 認識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한편 神은 形狀과 部分的인 特性을 통해 動物體와 비슷한 性質을 가진 存在로 認識되었을 可能性도 있다. 여기에서 다시 神과 다른 存在들을 갈라 놓는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點이 나타난다.

(8) 神話를 하나의 構造物이라 前提할 때, 神은 이 構造的 要素라 볼 수 있다. 그런데 山海經의 神은 明白히 神話的 構造的 要素라 할 수 있는 職能神과 構造上의 所屬을 알 수 없는 存在神으로 大別된다.

(9) 職能神은 다시 그 構造와의 關係가 明白한 構造的 職能神과 그것이 不分明한 斷片的 職能神으로 나뉘어진다.

(10) 山海經에서 存在神, 構造的 職能神, 斷片的 職能神이 함께 나타난다는 點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은 神話가 變化하는 過程에 對한 假說을 세워볼 수 있다.

即 神話의 原型은 斷片的 要素의 集合이며, 이것들이 時間의 경과에

따라 서로 合成하여 神話的 構造는 더 큰 構造로 발전되거나 와해된다. 山海經의 存在神은 神話의 基本的 要素로서 神話的 構造가 形成되는 段階에서 편입되지 못하고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構造的 職能神은 이 神話的 構造의 殘存物이며, 斷片的 職能神은 神話的 構造가 와해된 後의 殘存物이라 볼 수 있다.

(11) 또 山海經의 神들은 特定の 地域들과 關聯되어 있고, 이로 미루어 神話的 構造의 形成과 와해의 과정에서 地域의 問題도 變化의 要素로 作用했을 可能性이 있으며, 이러한 點에서 볼 때 山海經에 나오는 大部分의 神들은 地域神의 屬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結論은 거의 全部가 아직 假說的인 것에 不過하다. 本考에서 行한 가장 主된 作業은 山海經에 나타난 神의 性質을 一般化시켜 보려 한 것인데, 이러한 一般化의 方法 자체가 合理的인 것인지조차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結論이 假說的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本考에서 提示한 假說이라는 것은 中國神話의 研究에 그대로 適用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山海經을 將來에 神話研究의 資料로 活用하기 위한 準備作業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 提示된 假說들이 將來에는 대폭 修正되거나 否定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앞으로 山海經은 다른 資料와 比較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本考에서 提示된 內容이 再檢討될 機會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引用 資料 表

번호	記錄部分	引用 資料
1	西次三經	槐江之山, …實惟帝之平圃, 神英招司之, 其狀馬身而人面, 虎文而鳥翼, 徇于四海, 其音如樞。
2	西次三經	爰有淫水, 其濤洛洛, 有天神焉, 其狀如牛而八足, 二首馬尾, 其音如勃皇, 見則其邑有兵。

번호	記錄部分	引用資料
3	西次三經	昆侖之丘，…是實惟帝之下都，神陸吾司之，其神狀虎身而九尾，人面而虎爪，是神也，司天之九部及帝之囿時。
4	西次三經	流沙三百里至于羸母之山，…神長乘司之，是天之九德也，其神狀如人而豹尾。
5	西次三經	玉山，是西王母所居也。西王母，其狀如人豹尾，虎齒而善嘯，蓬髮戴勝，是司天之厲及五殘。
6	西次三經	長酉之出，…其神白帝少昊居之，其獸皆文尾，其鳥皆文首，實惟員神碓氏之宮，是神也，主司反景。
7	西次三經	符陽之山，…神江疑居之，是山也，多怪風雲之所出也。
8	西次三經	騶山，…神耆童居之，其音常如鐘磬。
9	西次三經	天山，…有神焉，其狀如黃囊，赤如丹火，六足四翼，渾敦無面目，是識歌舞，實爲帝江也。
10	西次三經	洳山，…神蓐收居之，是山也，西望日之所入，其氣員，神紅光之所司也。
11	西次四經	剛山，…是多神媿，其狀人面獸身，一足一首，其音如欽。
12	中次三經	青要之山，…實維帝之密都，是多駕鳥，南望埤渚，禹父之所化，是多僕纍蒲盧，魍武羅司之，其狀人面而豹文，小要而白齒，而穿耳以鏤，其鳴如鳴玉，是山也宜女子。
13	中次三經	和山，…實維河之九都，…吉神泰逢司之，其狀如人面虎尾，是好居于黃山之陽，出入有光，泰逢神動天地氣也。
14	中次七經	休與之山，…其上有石焉，名曰帝臺之棋，五色而文，其狀如鷄卵，帝臺之石，所以禱百神者也，服之不蠱。
15	中次七經	鼓鍾之山，…帝臺之所以醵百神也。
16	中次七經	堵山，…神天，愚居之，是多怪風雨。
17	中次八經	驕山，…神蠃圍處之，其狀如人面，羊角虎爪，恒遊于睢漳之淵，出入有光。
18	中次八經	光山，…神計蒙處之，其狀人身而龍首，恒遊于漳淵，出入必有飄風暴雨。

번호	記錄部分	引用資料
19	中次八經	岐山, …神涉蟲處之, 其狀人身而方面三足。
20	中次九經	熊山, …有穴焉, 熊之穴, 恒出神人, 夏啓而冬閉, 是穴也冬啓, 乃必有兵。
21	中次十一經	豐山, …神耕父處之, 常遊清冷之淵, 出入有光, 見則其國爲敗。
22	中次十二經	夫夫之山, …神于兒居之, 其狀人身而身操兩蛇, 常遊于江淵, 出入有光。
23	中次十二經	洞庭之山, …是多怪神, 狀如人而載蛇, 左右手操兩蛇。
24	海外南經	有神人二八, 連臂, 爲帝司夜于此野, 羽民東, 其爲人, 小頰赤肩, 盡十六人。
25	海外西經	形天與帝, 至此爭神, 帝斷其首, 葬之常羊之山, 乃以乳爲目, 以臍爲口, 操干戚以舞。
26	海外北經	鍾山之神名曰燭陰, 視爲晝, 瞑爲夜, 吹爲冬, 呼爲夏, 不飲不食不息, 息爲風, 身長千里, 在無瞽之東, 其爲物, 人面蛇身赤色, 居鍾山之下。
27	海外東經	朝陽之谷, 神曰天吳, 是爲水伯, 在虫蚕北兩水間, 其爲獸也, 八首人面八足八尾, 皆青黃。
28	海內西經	海內昆侖之虛, 在西北, 帝之下都。昆侖之虛方八百里, 高萬仞, 上有木禾, 長五尋大五圍, 面有九井, 以玉爲檻, 門有開明獸守之, 百神之所在, 在八隅之巖, 赤水之際, 非仁羿莫能上岡之巖。
29	海內東經	雷澤中有雷神, 龍身而人頭, 鼓其腹, 在吳西。
30	海外南經	南方祝融, 獸身人面, 乘兩龍。
31	海外西經	西方蓐收, 左耳有蛇, 乘兩龍。
32	海外北經	北方禺彊, 人面鳥身, 珥兩青蛇, 踐兩青蛇。
33	海外東經	東方句芒, 鳥身人面, 乘兩龍。
34	大荒東經	有神人面獸身, 名曰犂臯之尸。
35	大荒東經	有神人, 八首人面虎身十尾, 名曰天吳。

번호	記錄部分	引用資料
36	大荒東經	有神人面犬耳獸身珥青蛇，名曰審比尸。
37	大荒西經	有神十人，名曰女媧之腸化爲神，處栗廣之野，橫道而處。
38	大荒西經	有神人面無臂，兩足反屬于頭山，名曰噓。
39	大荒西經	西海之南，流沙之濱，赤水之後，黑水之前，有大山名曰昆侖之丘，有神人面虎身有尾，皆白處之。
40	大荒北經	大荒之中有山，名曰北極天櫃，海水北注焉。有神九首人面鳥身，名曰九鳳。 又有神，復蛇操蛇，其狀虎首人身四腕長肘，名曰彊良。
41	海內經	有神焉，人首蛇身，長如轆，左右有首，衣紫衣冠旃冠，名曰延維，人主得而饗食之，伯天下。
42	大荒東經	大荒之中有山，名曰鞠陵于天，東極離瞽，日月所出，名曰折丹，東方曰折，來風曰俊，處東極以出入風。
43	大荒南經	有神名曰因因乎，南方曰因乎，奈風曰乎民，處南極以出入風。
44	大荒西經	有人名曰石夷，來風曰韋，處西北隅以司日月之長短。
45	大荒東經	東海之渚中，有神人面鳥身，珥兩黃蛇，踐兩黃蛇，名曰禺虢。黃帝生禺虢，禺虢生禺京。禺京處北海，禺虢處東海，是惟海神。
46	大荒南經	南海渚中有神，人面珥兩青蛇，踐兩赤蛇，曰不廷胡余。
47	大荒西經	西海渚中，有神人面鳥身，珥兩青蛇，踐兩赤蛇，名曰奔茲。
48	大荒西經	有人戴勝虎齒，有豹尾穴處，名曰西王母。

參考文獻

郭璞，山海經注，四部叢刊本，臺灣中華書局，1970，臺北

郝懿行，山海經箋疏，藝文印書館，1974，臺北

國語，四部叢刊本，台灣中華書局，1970，臺北

袁珂，中國古代神話，中華書局，1960，北京

袁珂，「略論山海經的神話」，中華文史論叢 第十輯（1979，2輯）上海古籍出版社，

1979, 上海

楊寬, 中國上古史導論, 古史辨 七冊, 1941, (明倫出版社 1970 影印本, 臺北)

印順法師, 中國古代民族神話與文化之研究, 華岡出版公司, 1974, 臺北

徐旭生, 中國古史的傳說時代, 科學出版社, 1960, 北京

樂蘅軍, 「中國原始變形神話試探」, 中國古典文學論叢冊三, 神話與小說之部, 中外文學社, 1976, 臺北

杜而未, 中國古代宗教研究, 學生書局, 1976, 臺北

王孝廉, 中國的神話與傳說, 聯經出版事業公司, 1977, 臺北

森安太郎, 中國古代神話研究, 地平線出版社, 1979, 臺北

衛聚賢, 中國古史中的上帝觀, 基督教文藝出版社, 1971, 香港

傅錫壬, 「山海經研究」, 淡江學報 14, 1976. 4, pp. 33~61

鄭德坤, 「山海經及其神話」, 史學年報, 第四期, 1932, pp. 127~151